

KIA 이창진 타격폼 바꾸고 장타 '펑펑'

KIA 타이거즈의 이창진(31)이 타격폼을 바꾼 뒤 장타쇼를 선보이고 있다.

이창진의 2022시즌 출발은 다소 좋지 못했다. 1군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시즌 개막도 2군에서 맞았다.

기회가 올 만하면 부상에 발목이 잡히던 그였다.

2019년 133경기에서 타율 0.270 6홈런 48타점을 기록하며 신인왕 투표 2위에 오르기도 했던 이창진은 2020년 허리 통증으로 22경기 출전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105경기에 출전했지만 백업 외야수였다.

이번 시즌에는 외야에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합류하고, 거포 기대주 김석환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가면서 이창진은 1군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 지난달 21일에야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이창진은 2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까지 19경기에 출전, 타율 0.333(33타수 11안타) 3홈런 7타점에 출루율 0.436, 장타율 0.697로 맹활약하고 있다.

안타 11개 중에 6개가 장타다. 홈런 3개에 2루타 3개를 쳤다.

이창진은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나름대로 잘 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했다"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어느 위치에서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종국 KIA 감독도 "이창진이 지난해 개인사 등으로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잘

22일 NC전서 시즌 2·3호 홈런 작렬
"레그kick 줄이니 타이밍 맞추기 조금 쉬워"



광주 북구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1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SSG 랜더스의 경기, 3회말 무사에서 KIA 이창진이 2루수 왼쪽 내야 안타를 치고 있다.

했다"면서 "원래 주전 외야수로 뛰던 선수고, 집중력도 좋다. 기회를 잘 잡았다"고 칭찬했다.

교타자 이미지가 강했지만, 타격폼을 바꾸면서 장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김 감독은 "이창진이 키는 크지 않지만, 몸이 좋다. 원래 교타자에

가까웠는데 레그kick을 줄이고,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강한 타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진은 "예전에는 다리를 들고 치는 타격을 했는데 지금은 다리를 짝어놓고 친다. 하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타격을 하다보니 흔들림이 덜하다"면서 "다리를 때 보

다 타이밍을 맞추기가 더 쉬워졌다. 이범호 코치님과 의논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늘린 것도 장타가 늘어난 비결이다. 그는 "진부상이 많아서 올 시즌을 앞두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신경을 썼다"고 했다.

장타에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창진은 여전히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둔다.

지난 22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에서는 프로 데뷔 9년 만에 처음으로 연타석 홈런을 쳤다. 2회에 송명기의 초구를 노려쳐서 우중간 담장을 넘겼고, 3회에는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월 3점포를 쏘아올렸다.

이창진은 "그날은 바람이 도와줬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나도 깜짝 놀랐다"면서 "양쪽으로 홈런을 날렸지만 모두 바람 덕분"이라고 겸손함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도 장타를 노리기보다는 정확히 치려고 노력한다. 타석에서 크게 쳐야겠다는 생각보다 정확하게 맞는 것에 신경을 쓴다"고 강조했다.

장타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지만 이창진의 장타쇼에 사령탑은 든든하다.

김 감독은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된다. 단타를 잘 치는 타자나 발 빠른 선수도 중요하지만, 큰 것 하나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며 "상대 투수나 야수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투수들은 홈런을 피하려다가 실투를 던지기도 한다"고 반겼다. /뉴스



텍사스 총기난사 사건에 고개숙인 메이저리그 텍사스 총기난사 사건에 메이저리그(MLB)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우리의 마음속은 슬픔에 휩싸였다. 비극의 희생자 가족과 친구, 유배민의 모든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뉴스

전남, 전국소년체육대회에 703명 출전

태권도·레슬링·씨름·육상·자전거 등 상위권 기대



전남교육청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다.

2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선수단은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 사전경기인 체조를 비롯해 33개 종목 703명의 학생 선수가 출전한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태권도·레슬링·씨름·복싱 등 토너먼트 종목과 육상·자전거 등 기록 종목에서 상위권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레슬링 종목에 출전하는 전남체육중 김동찬 선수와 김동준 선수는 쌍둥이 형제로 나란히 입상을 노리고 있다. /박종배 기자



KB금융 리브챔피언십 포토콜 25일 블랙스톤 이천GC에서 열린 KB금융 리브챔피언십 포토콜에서 장희민, 신상훈, 김동은, 문경준, 김한별, 서요섭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KPGA 제공

히딩크, 다시문친 박지성·이영표 경기 지휘한다

내달 초 한일월드컵 20주년 '2022 KFA 풋볼 페스티벌'



002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쓰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거스 히딩크(76) 전 감독이 당시 제자들과 다시 손발을 맞춘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한일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2022 KFA 풋볼 페스티벌' 주간으로 지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히딩크 전 감독도 뜻깊은 자리를 위해 한국을 찾아 한일월드컵을 추억한다. 특히 한일월드컵 멤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그라운드에서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다음달 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리는 한일월드컵 멤버들과 14세 이하(U-14) 대표 선수들이 '레전드 매

치'를 갖는다. 8대8 경기로 진행되며, 히딩크 감독은 20년 전, 제자들 틈에서 지휘봉을 잡는다.

정해성 코치가 2002년처럼 코치로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고, 박지성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 이영표 강원 FC대표이사,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이천수 등이 나선다.

또 히딩크 감독은 앞서 2일 오전 11시부터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월드컵 20주년 기념 오찬 행사에 참석한다.

정몽준 당시 월드컵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대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환희와 감동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3일에는 KFA 지도자 컨퍼런스에 나서 국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 강의를 진행할 계획도 있다.

한편,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페스티벌 기간 중인 2일과 6일 각각 브라질, 칠레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르며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뉴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

법성포천년 단인빛에 직하다

2022

법성포 단오제

法聖浦 端午祭

▶ 일시 : 2022. 6. 2.(목) ~ 6. 5.(일) 4일간

▶ 장소 :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일원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154-13)

NAVER 법성포단오제

◆ 국가무형문화재(공개행사) ◆

- ▶ 난장ტი
- ▶ 용왕제·선유놀이
- ▶ 전국국악경연대회
- ▶ 단오장사씨름대회

◆ 주요 행사 ◆

- ▶ 6.2. : KBS 국악한마당
- ▶ 6.3. : 기념식 (한눈에 즐기는 법성포단오제)
- ▶ 6.4. : KBS 전국노래자랑
- ▶ 6.5. : KH그룹배 전국단오가요제

▶ 주최·주관 :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 재전위원회 ☎ 061-356-4331

▶ 후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영광군의회, 영광군민회, 영광군수업, KH 필릭스, KH Electron, KH 건설(주), KH IHO, JangwonTech, KH 강원개발, KH 생방송, KANGUM(주)광명, (주)나노스